

The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Emo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Support for Teaching Autonomy, and Learning Engagement among Senior Vocational Trainees

Kim, Sungwoo (Kyunggi University, Doctoral Student)
An, Yoonjung¹⁾ (Kyungg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aculty autonomy support on learning engagement, mediated by achievement emotion, among senior vocational trainees. For this purpose, 191 cautious older vocational trainees participating in national strategic industry occupation training at a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Gyeonggi-do were surveyed. SPSS 27 and AMO 24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support for teaching autonomy, learning immersion, and achievement emotion were all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faculty autonomy support, learning engagement, and achievement mood were all significant except for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learning engagement and faculty autonomy support on achievement mood. Third, achievement emotion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earning engagement, an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for faculty autonomy and learning engagemen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pport for faculty autonomy are the main predictors of learning engagement among senior vocational trainees, and the mediating role of achievement emotion in the relationship is confirmed. In order to increase the learning engagement of senior vocational trainees, it is recommended that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to manag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aculty autonomy support and to enhance achievement emotion.

Key Words : Psychological well-being, learning engagement, achievement emotion, faculty autonomy, senior vocational trainees

1) Corresponding Author: An, Yoonjung, Assistant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24, Gyeonggi-daero 9-gil, Seodaemun-gu, Seoul, Korea, 03746 / E-mail: ayj_calling@kyonggi.ac.kr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 분석

김성우 (경기대학교, 박사과정)

안윤정¹⁾ (경기대학교, 조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신중년직업훈련생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율성지지가 성취정서를 매개로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있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에 참여하는 신중년 직업훈련생 191명을 설문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7과 AMOS 24를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 간의 관계는 심리적 안녕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교수자율성지지가 성취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성취정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 교수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안녕감과 교수자율성지지는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변인이며, 그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율성지지의 관리와 더불어 성취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 안녕감, 학습몰입, 성취정서, 교수자율성지지, 신중년 직업훈련생

1) 교신저자: 안윤정, 교수, (037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9길 24, 경기대학교 / E-mail: ajj_calling@kyonggi.ac.kr

논문투고일자: 2023. 05. 22 / 심사일자: 2023. 05. 23 / 게재확정일자: 2023. 06. 09

I. 서론

신중년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69세 연령의 내국인을 말한다(Korea Labor and Employment Service, 2022). 신중년 인구는 2022년 기준 2,300만 명이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6.3%(Statistics Korea, 202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할 신중년들의 현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2021년 기준 49.3세로 OECD 평균 64.5세보다 16년 정도 빠르다(Statistical Korea, 2021).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재취업의 의미는 노년기에 필요한 노후 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육체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Cho, 2022).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평생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일이 절실하다(Kim et al., 201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신중년층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직업기술을 향상시켜 역량개발을 하고 자신감 상승과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에 따라 신중년의 적극적인 직업훈련 참여와 학습성과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학습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학습몰입에 있는데(Kim & Lee, 2021), 학습몰입은 교육에서 얻는 성취감, 훈련 및 경험에 대한 만족감과 더불어 학습자의 각종 역량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Klem & Connell, 2004). 성인 학습자에게 학습몰입은 개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Kim & Lee, 2021). 훈련생들의 훈련 성과를 높여주기 위한 다른 변수 중에 훈련역량을 높여주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학습에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지지해주는 교수자의 학습에서의 자율성 즉, 교수자자율성 지지가 학습 성공의 원천이라 볼 수 있다(Choi & Jo, 2021). 교육참여자들이 인지하는 교수자에 대한 인식은 동기와 학습 관련 요인들을 결정하며(Murdock & Miller, 2003), 교수자가 학생에 대한 지지와 격려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태도는 학습자의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ssor et al., 2002). 학습자들이 훈련과 학습에 집중과 몰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를 목표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Csikszentmihalyi, 1990),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는 훈련 성과와 학습몰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중년들은 퇴직 후 직업훈련을 받거나, 새로운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정감을 겪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Cho, 2022), 이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정규교육 기관에서 졸업한 지 오래되어 학습에 대한 공백이 있고, 훈련기관과 집

의 거리 등 통학에 대한 시간 투자,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가사 부담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훈련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며 참여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 학습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낮은 의욕이나, 자존감 상실, 부정적 감정, 시간, 공간 등의 제약이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며(Choi & Han, 2019), 이러한 심리적 장애 요인은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훈련과 삶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수입의 감소, 시간적 제약, 훈련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 우울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신중년 직업훈련생들은 가정과 일, 자격증 취득 및 직업기술 습득을 병행하면서 심리적 장애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이는 진로장벽 및 훈련몰입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신중년 직업훈련생들의 직업훈련 참여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고 훈련정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습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은 신중년 훈련생들의 성취정서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서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학습자의 교육 성공과 성취에 영향을 준다(Pekrun et al., 2006). 성취정서는 성취 활동이나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정서적 각성상태로(Pekrun & Perry, 2014), 교육이나 학습과 관련된 정서들은 대부분 성취정서와 관련이 있다. Jo & Yoo(2016)는 학습자의 목표지향성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가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성취정서가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3). 개인이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성취정서는 학습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Cho, 2014), 신중년들이 직업훈련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성취정서는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중년 직업훈련생들의 학습몰입과 관련한 변인들을 탐색하고 각 변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신중년 직업훈련생들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율성 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중년 훈련생들의 학습몰입을 상승시키는 방법과 긍정적 정서를 갖기 위한 직업훈련개발 및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신중년의 직업훈련

신중년이란 용어는 2017년 정부에서 처음 발표하였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고령자’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을 불식하고 대신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Lee, 2019). 최근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한 신중년 희망통계에서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40세~69세의 연령을 신중년이라고 명명하였다. 신중년과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70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2). 이처럼 인구구조에서 신중년과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신중년의 일자리와 노후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중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향, 사회적 관계, 은퇴와 노화에 대한 관점, 생활방식, 은퇴 전의 직업, 직업교육 등이 제시되고 있다(Kang, 2014). 신중년의 은퇴와 경제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신중년 시기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와 취업 활동에서 은퇴하는 노년기 접어드는 ‘가교적’ 시기로서(Quadagno et al., 2003), 이 시기의 노동시장 지위는 신중년층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상태, 심리적 상태를 결정한다(Jeon & Lim, 2002).

일반적으로 ‘취업’이란 개인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며, 취업자 본인과 가구원의 경제적인 이익과 정서적 특성을 결정한다(Jeong, 2015). 특히 신중년에게 있어서 재취업은 현재와 노후의 생계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질서를 규정하고, 사회적 관계 및 자아 정체감을 제공하는 활동 영역이다(Baltes & Carstensen, 1999).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에도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가교적’ 기능의 일자리의 종류에 따라서 신중년의 경제적 생활상태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Hardy & Quadagno, 1995).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안정적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양호한 신중년층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상실감이 적은 경향을 나타낸다(Lee, 2009). 이런 상황 속에서 신중년의 경제적 상황과 재취업을 고려한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신중년층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의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가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신중년 실업자, 퇴직 예정자가 취업과 창직을 위한 지식, 기술을 개발하고, 진로와 삶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중년층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신중년과 중장년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중장년 교육참여자의 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7)와 중장년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관한 연구(Jeong, 2015) 등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신중년들에게 직업훈련은 고용가능성을 촉진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Ryff, 1989). 자기 잠재력을 상승시키고 사회의 구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자기실현적 관점으로 개인의 행복을 규정한다(Ryff & Keyes, 1995). 또한, 친구와 동료들 사귀는 데 적극적이고 일에 대한 성취를 중요시하며, 대인관계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Ku & Suh, 2007).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율적인 삶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자기실현을 완성하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일에 대한 성공과 삶의 성취 모두를 효율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긍정적 정서는 학습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쳐 심리적 안녕감은 학습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 2010). 심리적 안녕감과 고용안정성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중장년 직업훈련생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2015). 교육 훈련현장과 학습현장에서 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을 학습 및 고용성으로 본다면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학습몰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심리학 이론에서 처음 사용된 몰입이란 용어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경험을 갖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심리학자인 Csikszentmihalyi(as cited in Kim, 2003)가 처음 사용한 이후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연구에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몰입은 개인이 어떤 행위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을 때 느끼는 몰아일체의 상태로도 정의되며(Csikszentmihalyi, 1975), 과제 상황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90). 이러한 몰입은 과제를 수행하는 당사자가 활동에 최대한 참여하여 즐거움과 창조성을 경험하는 순간에 관찰된다(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88). 몰입은 과제 수행자가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연계된 상태인 최고 수준의 수행으로도 정의되고 있다(Jackson & Marsh, 1996).

Wlodkowski & Ginsberg(2017)는 학습몰입이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고 공부의 즐거움, 높은 수준의 학습경험, 능력개발, 학습 효능감 등을 경험하게 해주는 내적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학습몰입은 몰입의 개념을 학습상황과 관련된 상황에 적용하여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집중, 흡입 또는 학습과 완전히 흡수되는 상태로 볼 수 있다(Lee, 2001). 성인학습 교육참여자의 학습몰입에 관한 연구(Kim, 2003)에서 성인 학습자 프로그램에서의 학습몰입을 참여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에 완전히 몰두하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Csikszentmihalyi(1990)는 학습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학습자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심리적 안정 상태에 도달하여, 학습경험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처럼 학습몰입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학습자가 쏟아내는 노력과 에너지이며, 학업 성공 차원에서 학습경험과 실력 향상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몰입은 개인적 배경과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학습몰입은 신중년 직업훈련생이 직업훈련 학습상황에서 학습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학습활동에 완전히 집중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최적의 상태를 의미하며(Jeong, 2014), 직업훈련 상황에서도 성인학습자인 직업훈련생은 취업과 연계되는 훈련으로 그 과정에서 학습활동에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중함으로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즐거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에 관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Skadberg & Kimmel(2004)은 안정적인 환경을 통해 학습몰입이 촉진될 수 있으며 그들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학습몰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실업자 전직 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Saam et al.(1995)은 전직 지원프로그램과 교육을 수강하는 퇴직자의 분노와 상실감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전직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의 분노와 상실감이 감소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을 이룬 실업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적극적이었고 이직에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하였다. 학업 적응과 관련해서 Aspinwall & Taylor(1997)는 고등학생들의 긍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학업적 적응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고, 이는 학습성파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성취정서에 관련된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관련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Lee et al., 2018)에서 대학생들의 높은 자아탄력성은 성취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심리상태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을 나타내며, 심리적 안녕감은 성취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Kim & Cho, 2016)는 대학생들의 긍정적 성취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정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련 해외 연구를

찾아보면 학생들의 자존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등의 긍정적 심리상태가 긍정적 성취정서에 영향을 미치며(Mega et al., 2014),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가 있는 개인이 부정적인 성취정서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밝혀냈다(Pekrun et al., 2009).

이상을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중년 직업훈련생들에게 심리적 안녕감은 성취정서와 학습몰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신중년 직업훈련생들은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발전은 물론이고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훈련 성과를 위한 성취정서와 학습몰입을 기대할 수 있다.

3. 교수자율성지지

교수자율성지지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상황에서 그들의 자율성과 학습활동의 참여를 얼마나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는지를 느끼는 정도이다(Guay & Vallerand, 1997). 학습자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교수자의 행동은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능동적인 존재이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Ames, 1992). 교수자율성지지는 학습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능성을 높여주며, 학습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학습동기वाद 특별한 관련이 있다(Soenens & Vansteenkiste, 2005).

대학생의 자율성 관련 연구에서(Black & Deci, 2000)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한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흥미를 더 많이 느끼며, 학습활동 중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이를 더 발전시켰으며 반면, 학습 환경 통제할 때는 학생들의 자율성이 억제되고 불안감이 나타났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Jeong & Park, 2008)는 대학생의 교수자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친밀감은 대학 생활 적응의 요인 중에서도 학업 적응과 만족에 가장 상관성이 높았다. 교수자의 긍정적 멘토링은 학습자의 학교 생활 적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Lee & Kim, 2011).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일 때, 학습자는 교수자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되고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Ahn, 2013).

교수자율성지지와 관련 변인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는 요인에 관한 Cha(2017)에 의하면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들의 학습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Lee(2010)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Kim(2012)은 교수자와 학생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Kwon(2006)은 교수자의 학생들에 대한 선호와 서로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학습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교수자율성지지와 성취정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Kim(2010)는 교수자에 대한 자율성지지 인식이 학습자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인식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Heo & Kim, 2012; Im, 2004). Linger(2001)는 교수자에 대한 학생들의 친밀감이 높아질 때 학생들의 학습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Jang et al.(2016)는 교수자율성지지가 학습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Roth & Assor(2010)는 청소년의 자율성지지 인식은 긍정적인 성취정서를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신중년 직업훈련생들에게 교수자의 친밀감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이 선행했을 때 교수자와 훈련생들은 상호 간의 신뢰감 상승하고 이에 따른 학습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져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4. 성취정서

성취정서는 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습결과나 시험상황 등 성과와 관련된 부분을 학생들이 인식할 때 자신의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통제하여 성취정서를 경험하는가에 관한 도식을 말한다(Cho, 2014). 여기에서 말하는 통제는 성취 행동과 학습결과에 대해서 지각한 주관적인 통제 가능성이며, 가치평가는 학습성취와 관련된 활동과 결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는가에 관한 것이다(Pekrun & Linnenbrink-Garcia, 2014).

성취정서의 통제-가치 이론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습상황에서 정서적 경험은 어떤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이들이 지각하는 학습 환경 요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통제-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성취정서를 경험한다(Pekrun et al., 2006). 여기에서 경험하는 성취정서는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즐거운 정서는 학습상황이 통제할 수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경우 경험되며 이는 긍정적 성취정서로 이어진다. 학습상황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습득할 수 있고 재미있다면 즐거운 성취정서를 얻을 것이다. 반면 학습과제가 지루하고 얻어낼 수 있는 영역에 적다고 여기어지면 부정적인 정서를 얻을 것이다. 잠재적인 성공 및 실패와 관련되는 희망과 불안은 성취 결과에 대해 불확실함이 암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Choi, 2013).

성취정서와 학습몰입의 관계를 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긍정적 성취정서는 학습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Lee et al., 2018), 성인 학습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수록 학습몰입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Kim & Lee, 2021). 높은 성취정서가 고등학생들의 학습몰입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 Yoo, 2016). 독일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취목표, 성취정서,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는 학습몰입과 정적상관이 있으며(S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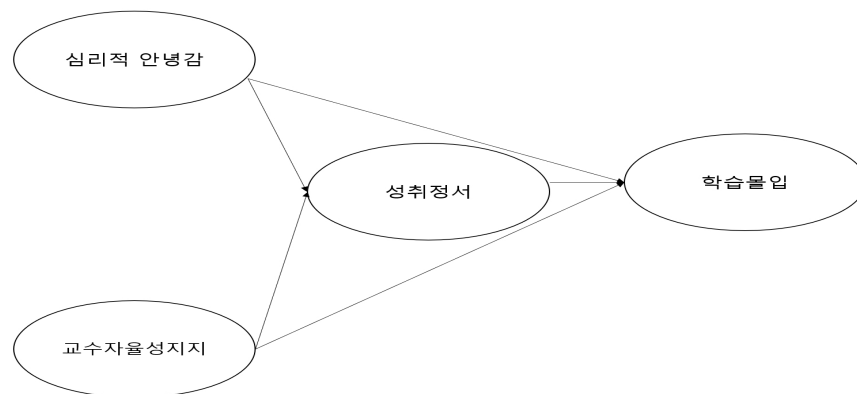
Do 2012), 대만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정서에 정적 영향을, 다시 긍정적 성취정서는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Chen et al., 2001).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학업행동 등 학습성과에 성취정서가 매개역할을 하는 선행연구들이 있으며(Kim, 2022; Park & Lee, 2022; Son & Do, 2012),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훈련의 관점에서 성취정서의 역할을 본다면 성취정서는 직업훈련이라는 실질적인 학습의 과정에서도 인지적 영역과는 또 다른 정서의 영역에서 훈련생들의 학습몰입과 훈련성과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배경을 바탕으로 신중년 직업훈련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 간의 구조적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율성지지는 성취정서를 매개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성취정서, 학습몰입 관계 모형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퇴직하거나 은퇴한 40세~69세의 실업자이면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으로 경기지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서 국가기

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40세 이상 직업훈련생 200명을 선정했다. 2023년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전체 설문지는 총 200부가 배포되었고 회수된 2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대상자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생으로 한정된 이유는 국가훈련의 경우 훈련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1개월 이내의 짧은 훈련과는 달리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장기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생들과 교수자와의 친밀도 및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측정도구

가. 학습몰입 척도

본 연구에서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Martin & Jackson(2008)이 개발한 2개의 몰입 척도(ShortFlow 9문항, CoreFlow 10문항)를 Jeong(2014)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용으로 수정하여 만든 직업훈련생 학습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영역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위는 Martin & Jackson(2008) 도구의 응답 범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예시 문항으로는 ‘수업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이며,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926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자율성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의 교수자율성지지 척도는 Williams & Deci(1996)의 학습풍토 질문지(The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LCQ) 중에서 수업 시간에 교수자가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정도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LCQ for Perceived Autonomy Support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학습상황에 대한 특정 과목만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생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종합해서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는 ‘교수님이 수업 중에 나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준다고 느낀다.’, ‘교수님이 수업 중에 잘 이해해준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중년직업훈련생이 수업 중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940으로 나타났다.

다.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Cho(2006)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신중년직업훈련생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개인 성장은 (3문항, 예: 나에게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자율성(3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 자아수용(3문항, 예: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이 마음에 든다), 삶의 목적(3문항, 예: 나는 가끔 인생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긍정 대인관계(3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경험해 오지 못했다), 환경통제력 (3문항, 예: 나는 일상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였고 이는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고,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계수는 .688로 나타났다.

라. 성취정서

본 연구에서 설문을 위해 사용한 척도는 Choi(2013)가 개발한 성취정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긍정 정서는 즐거움(3문항, 예: 나는 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 공부할 때 기분이 좋다), 희망과 긍지(7문항, 예: 열심히 공부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이고, 부정적 정서는 짜증(5문항, 예: 나는 공부할 때 내용이 많아 짜증이 난다), 무력감(4문항, 예: 공부할 때마다 내 실력이 부족함을 느낀다), 지루함(3문항, 예: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나 자신이 한심하다), 수치심(5문항, 예: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 창피하다' 이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성취정서 척도는 5점으로 구성된 Likert 형태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를 살펴본 결과 .934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 분석을 위해 SPSS 27.0과 AMOS 24를 사용하였고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인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성취정서, 학습몰입에 대한 응답분포로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성취정서,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산출 후, 이에 대한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

감과 교수자율성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율성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성취정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시행했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165명(86.4%), 여성은 26명으로(13.6%)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 103명(53.9%), 50대 51명(26.7%), 60대 37명(19.4%)으로, 학력은 고졸 72명(38.1%), 전문대졸 41명(21.7%), 대졸 이상 76명(39.2%) 등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i>n</i>	%
성별	남성	165	86.4
	여성	26	13.6
연령	40대	103	53.9
	50대	51	26.7
	60대	37	19.4
학력	고졸	72	38.1
	전문대졸	41	21.7
	대졸 이상	76	39.2
결혼 여부	미혼	60	31.4
	기혼	116	60.7
	기타	15	7.9
	없음	8	4.2
직장경력	1~5년	27	14.2
	6~9년	20	10.5
	10~20년	69	36.3
	21~29년	36	18.9
	30년 이상	30	15.8
	총합		191

결혼 여부는 미혼은 60명(31.4%), 기혼은 116명(60.7%), 기타는 15명(7.9%) 등이며, 직장경력을 살펴보면, 없음은 8명으로 4.2%, 1~5년은 27명으로 14.2%, 6~9년은 20명으로 10.5%, 10~20년은 69명으로 36.3%, 21~29년은 36명으로 18.9%, 30년 이상은 30명으로 15.8%로 나타났다.

2.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의 수준

본 연구의 기술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이 4.00 표준편차가 .622, 성취정서는 평균이 3.72 표준편차가 .653, 학습몰입은 평균이 3.75 표준편차가 .572, 교수자율성지지는 평균이 3.91 표준편차가 .677 등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정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응답 자료 정규성 검토 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와 첨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의 기술 통계량

	n	최솟값	최댓값	M	SD	왜도	첨도
심리적 안녕감	191	2	5	4.00	.622	-.617	.506
성취정서	191	2	5	3.72	.653	-.084	-.07
학습몰입	191	2	5	3.75	.572	-.024	.490
교수자율성지지	190	1	5	3.91	.677	-.387	.458

3.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의 상관관계

신중년 직업훈련생이 인식한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의 상관분석 결과

	심리적 안녕감	성취정서	학습몰입	교수자율성지지
심리적 안녕감	1			
성취정서	.278**	1		
학습몰입	.226**	.476**	1	
교수자율성지지	.228**	.208**	.585**	1

** p<.01

상관분석의 상관계수는 -1~+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관계수 앞에 (-)가 있으면 부적 상관관계로 두 변수의 방향은 반대이고, (+; 아무 표시 없음)은 정적 상관관계를 의미하므로 같은 방향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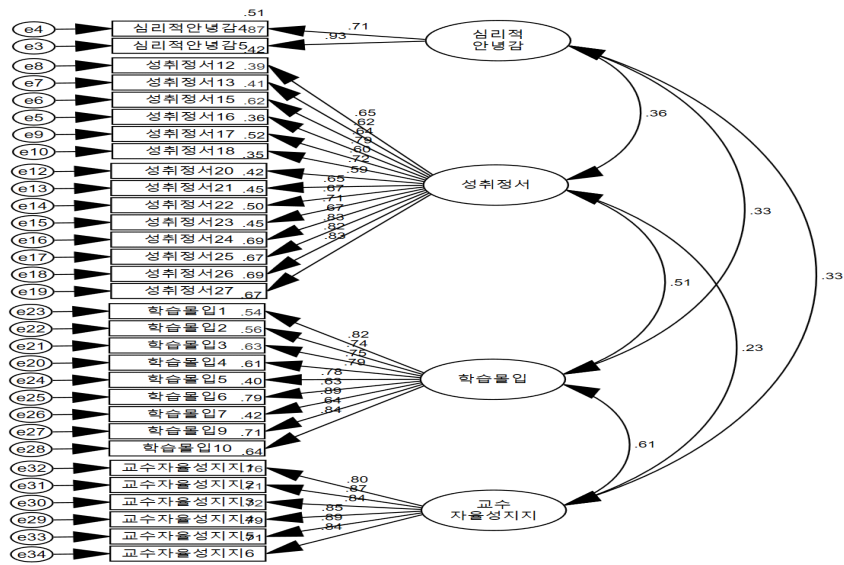
심리적 안녕감과 성취정서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2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2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율성지지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2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다음으로 성취정서와 학습몰입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4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취정서와 교수자율성지지는 상관계수가 .2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습몰입과 교수자율성지지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변인 간의 모든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및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각 잠재 변인을 구성하는 관측 변인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2>이고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증분적합지수 중 CFI 값과 TLI 값이 클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보며, 대략 .8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되어 진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SRMR
					Value	Lower Bound	Upper Bound	
1003.728	428	.000	.851	.863	.084	.077	.091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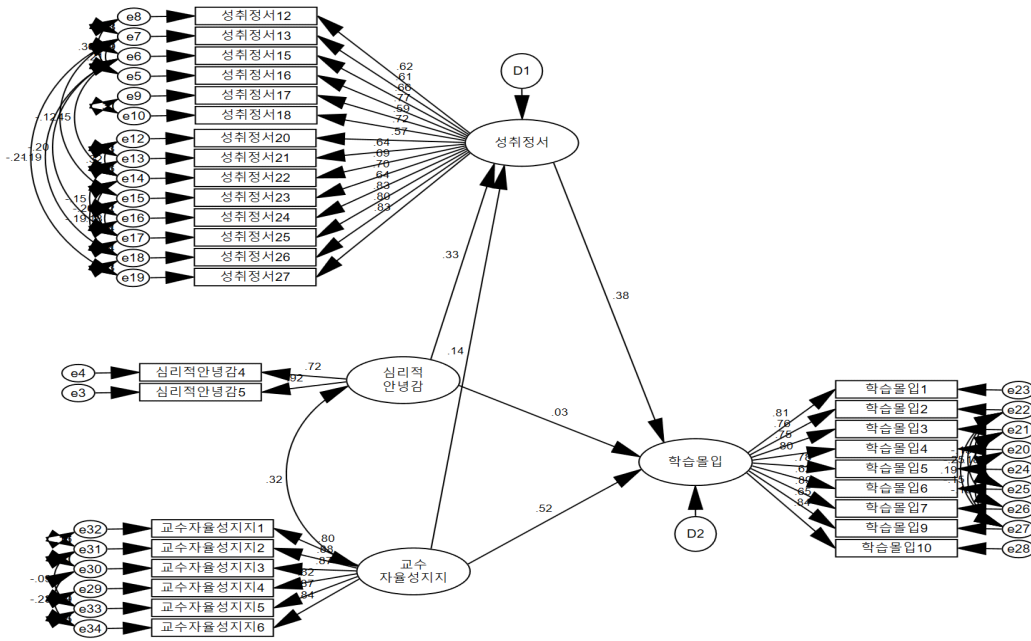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5. 구조모형 분석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유행정지가 성취정서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시행하였다. 결과치는 [그림 3]과 <표 5>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적합도의 기준으로는 보통 C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그리고 RMSEA 등이 사용되며 CMIN/DF는 2보다 낮아야 한다. RMR은 보통 .05 이하이어야 하고, GFI, AGFI, CFI, NFI는 보통 .9 이상이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다고 본다.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 적합도

Chi-square	CMIN/df	RMR	TLI	CFI	NFI	IFI	TLI	RMSEA
527.568	1.336	.034	.851	.968	.887	.969	.963	.042



[그림 3] 구조모형

6.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심리적 안녕감이 성취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29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Wald이 3.372이고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293이므로 심리적 안녕감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성취정서는 .293 증가하게 된다.

교수자율성지지가 성취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171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Wald이 1.777이고 유의확률이 .076이므로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정서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27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Wald이 5.463이고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278이므로 성취정서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학습몰입은 .278 증가하게 된다.

심리적 안녕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19으로 나

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Wald이 .433이고 유의확률이 .665이므로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율성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46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Wald이 7.291이고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461이므로 교수자율성지지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학습몰입은 .461 증가하게 된다(<표 6> 참조).

<표 6>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학습몰입, 성취정서의 관계

	경로항목	Estimate	S.E.	β	C.R.	p	가설
성취정서	<--- 심리적 안녕감	.293	.087	.326	3.372	.000	채택
성취정서	<--- 교수 자율성지지	.171	.097	.142	1.777	.076	기각
학습몰입	<--- 성취정서	.278	.051	.379	5.463	.000	채택
학습몰입	<--- 심리적 안녕감	.019	.044	.029	.433	.665	기각
학습몰입	<--- 교수 자율성지지	.461	.063	.521	7.291	.000	채택

7.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표 7>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수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간접 그리고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7>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

모형	예언변인	준거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매개모형	심리적 안녕감	성취정서	.326(.158~.493) $p=.000$.326(.158~.493) $p=.000$
		학습몰입	.029(-.123~.183) $p=.697$.124(.059~.224) $p=.000$.152(.011~.304) $p=.036$
	성취정서	학습몰입	.379(.236~.518) $p=.001$.379(.236~.518) $p=.001$

부트스트래핑은 5000번으로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모형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학습몰입에 대해 직접효과는 .029이고, 성취정서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124으로 나

타났다. 검증결과 간접효과 유의확률이 .05 미만이다. 심리적 안녕감이 학습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취정서 매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다.

8. 교수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

교수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표 8>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에서 교수자율성지지는 학습몰입에 대해 직접효과는 .521이고, 성취정서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054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간접효과 유의확률이 .05 미만이다. 결론적으로 교수자율성지지가 학습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취정서 매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

<표 8> 교수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

모형	예언변인	준거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매개모형	교수자율성 지지	성취정서	.142(-.006~.285) <i>p</i> =.059		.142(-.006~.285) <i>p</i> =.059
		학습몰입	.521(.347~.667) <i>p</i> =.000	.054(.002~.121) <i>p</i> =.041	.575(.396~.721) <i>p</i> =.000
	성취정서	학습몰입	.379(.236~.518) <i>p</i> =.001		.379(.236~.518) <i>p</i> =.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율성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 교수자율성지지, 성취정서, 학습몰입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율성지지는 성취정서와 학습몰입에 각각 정적관계, 성취정서는 학습몰입에 정적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중년 직업훈련생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더불어 신중년 직업훈련생

들이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수록 성취정서와 학습몰입이 높아지고 훈련생들이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를 인식할수록 학습몰입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적 상황에 따라 학습몰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Saam et al., 1995; Skadberg & Kimmel, 2004)와 맥을 같이 하며, 교수자자율성지지가 학습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ang et al., 2016)와도 일치한다.

즉,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긍정적 성취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상태와 정서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훈련기관 차원의 지도가 필요하다. 심리적 안녕감과 성취정서는 후천적으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직업훈련 시 이러한 변인들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훈련프로그램과, 상담, 스트레스 관리지도, 긍정심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은 성취정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성취정서를 높여주었다. 신중년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없지만, 대학생들의 높은 자아탄력성이 성취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18)와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긍정적인 성취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ega et al., 2014; Pekrun et al., 2009)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훈련성취와 정서를 높이는 데 있어 훈련생들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교육방식과 훈련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수자자율성지지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교수자에 대한 높은 자율성지지 인식은 학습몰입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Cha(2017)와 비교할 수 있는데 전문대학생의 교수자에 대한 자율성지지 인식은 학생들의 학습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직업훈련 교수자에 대한 친밀감과 긍정적인 자율성지지 인식은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비슷한 결과로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im, 2012; Lee, 2010)에서도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친밀성 인식이 학급풍토와 학습몰입의 촉진을 가져온다는 결과는 신중년 직업훈련생들의 훈련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인식이 중요하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를 참조해 볼 수 있다.

넷째,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자율성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으며, 교수자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는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매개변인인 성취정서를 통해서만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수자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는 성취정서를 통제해도 학습몰입에 대한 교수자자율성지지는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 교수자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이는 교수자에 대한 학생들의 친밀감이 높아질 때 학생들의 학습몰입이 높아진다는 연구(Linger, 2001), 대학생과 교수자의 자율성을 지지한 수업에 관해 연구한 선행연구(Jang et al., 2016)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학습몰입과 훈련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자자율성지지, 성취정서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데 있었다. 즉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심리적 안녕감뿐 아니라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와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한 학습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학습몰입을 높일 방안으로써 교수자자율성지지와 성취정서의 매개효과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리적 안녕감은 직업훈련상황과 수료 후의 취업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생애 발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Ryff & Keyes, 1995), 성취정서는 학습 및 훈련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진행 중인 성취 관련 활동이나 이러한 활동의 결과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Pekrun et al., 2006) 수료 후 고용 여부를 떠나 생애주기에 따라 장기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과 성취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생애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고용시장에서 필요한 역량과 기술 등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고용과 학습의 경계가 무너지고 평생학습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성취를 위한 긍정적 정서의 축진이 다양한 학습의 장면에서 요구된다.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훈련생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성취정서를 상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3개월 이상의 장기훈련인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 훈련에서도 ‘재량교과’라는 이름으로 총 훈련시간 중 5~6시간 정도의 취업상담만을 제공할 뿐 훈련생들의 근본적인 심리적 안녕감 등 정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과 성취정서는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 태도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훈련 기간 정기적이고 심층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긍정적 심리상태와 성취정서를 유지하는 습관을 지님으로써 삶과 직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중년 직업훈련생들이 3개월~8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교육에 몰입하고 다양한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훈련 상담의 질을 심리상담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교수자에 대한 자율성지지 인식은 훈련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해주고, 훈련상황에서 벌어지는 교수자와 신중년 훈련생들의 의견충돌방지 등 통제와 간섭을 줄였을 때 훈련성장에 효과가 있으므로 훈련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사고 및 자율성을 지지해 주고 격려해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 관계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을 경기지역 직업훈련기관으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모든 신중년 직업훈련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생 대상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의 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변인들을 측정하는 척도개발이 미흡하여 선행연구들의 심층적인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 신중년 직업훈련생의 대상적 특수함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과정에서 학습성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H. R. (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al factors between instructor and student on education: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in situations and the behavior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국문: 안호림(2013). 교수자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상황별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행위모델 탐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271.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0663.84.3.261>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7). A stitch in time: Self-regulation and proactive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121*(3), 417-436.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33-2909.121.3.417>
- Assor, A., Kaplan, H., & Roth, G. (2002). Choice is good, but relevance is excellent: Autonomy-enhancing and suppressing teacher behaviours predicting students' engagement in schoolwork.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2), 261-278. <https://doi.org/10.1348/000709902158883>
- Baltes, M. M., & Carstensen, L. L. (1999). Social-psychological theories and their applications to aging: From individual to collective. In V. L. Bengtso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ories of aging* (pp. 209-226).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Black, A. E., & Deci, E. L. (2000). The effects of instructors'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on learning organic chemistry: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Science Education, 84*(6), 740-756. [https://doi.org/10.1002/1098-237X\(200011\)84:6%3C740::AID-SCE4%3E3.0.CO;2-3](https://doi.org/10.1002/1098-237X(200011)84:6%3C740::AID-SCE4%3E3.0.CO;2-3)
- Cha, Y. M. (2017).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utonomy support,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flow as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 국문: 차유미(2017).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지지,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Chen, G., Gully, S. M.,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https://doi.org/10.1177/109442810141004>
- Cho, H. I.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ademic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determination theory,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7*(4), 207-229. ☞ 국문: 조한익(2014). 초등학생의 학업, 사회

- 적 성취목표지향성, 자기결정성, 학업성취도 및 학교 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초등교육연구**, 27(4), 207-229.
- Cho, J. B. (2022). *The effect of economic activity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new middle-aged: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stat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국문: 조진빈(2022).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상태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Cho, Y. J. (2006). Grandchildren caregivers'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10(3), 1-21. ☞ 국문: 조윤주(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0(3), 1-21.
- Choi, J. H. (2013).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achievement goals, achievement emotions,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국문: 최지혜(2013). **성취목표, 성취정서,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Choi, M. S., & Jo, H. Y. (2021).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s autonomy support and self-efficacy, immersion and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6), 295-305.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6.295> ☞ 국문: 최미순, 조혜영(2021). 대학생의 교수자율성 지지와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및 학습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295-305.
- Choi, S. D., & Han, H. J. (2019). Task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A needs analysis study on adult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5(4), 1-26. <http://doi.org/10.26857/JLLS.2019.11.15.4.1> ☞ 국문: 최상덕, 한효정(2019). 성인의 수요 분석을 통해 본 대학평생교육의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평생학습사회**, 15(4), 1-26.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Jossey-Bass.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Harper and Row.
- Csikszentmihalyi, M., & Csikszentmihalyi, I. S. (1988).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ay, F., & Vallerand, R. J. (1997). Social context, students'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oward a process model.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0(0), 211-233.
- Hardy, M. A., & Quadagno, J. (1995). Satisfaction with early retirement: Making choices in the auto industr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0(4), S217-S228.
- Heo, Y. B., & Kim, A. Y.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teacher' s autonomy support and

-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4), 1075-1096. ☞ 국문: 허예빈, 김아영(2012).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6(4), 1075-1096.
- Im, J. H. (2004).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ory motiv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임지현 (2004). 지각된 자율성 지지 정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 및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학교.
- Jackson, S. A., & Marsh, H. W.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8(1), 17-35. <https://doi.org/10.1123/jsep.18.1.17>
- Jang, H., Reeve, J., & Halusic, M. (2016). A new autonomy-supportive way of teaching that increases conceptual learning: Teaching in students' preferred way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8(4), 686-701. <https://doi.org/10.1080/00220973.2015.1083522>
- Jeon, G. Y., & Lim, J. Y. (2002). The effect of attachment styles and social support on the elderly's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3), 173-191. ☞ 국문: 전귀연, 임주영(2002). 노인의 애착 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3), 173-191.
- Jeong, E. Y., & Park, Y. H. (2008). Relations among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9(1), 73-93. <http://doi.org/10.15753/aje.2008.9.1.004> ☞ 국문: 정은이, 박용한(2008). 대학생들의 교수 신뢰와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9(1), 73-93.
- Jeong, S. J.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employability, trainee'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raining program characteristics, learning flow, and career planning of unemployed vocational train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정선정(2014).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적 특성, 훈련프로그램 특성, 학습몰입 및 경력계획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Jeong, S. J.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TVET service quality, psychological stability, informal networks and employability of the middle-aged unemployed vocational traine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4(6), 115-139. ☞ 국문: 정선정(2015). 중장년 실업자 훈련생이 인식하는 훈련서비스 품질과 심리적 안정감, 비공식적 네트워크 및 고용가능성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34(6), 115-139.
- Jo, H. J., & Yoo, H. S.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emotions in the

- relationships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learning flow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1069-1090. <http://doi.org/10.22251/jlcci.2016.16.9.1069> ㉮ 국문: 조희진, 유현실(2016).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1069-1090.
- Kang, S. K.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financial education, retirement expectations, social supports for middle-aged on the preparation for their old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국문: 강신기(2014). **중년층의 재무교육,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Kim, D. J. (2022). *The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emo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nd social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chool eng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 국문: 김동주(2022). **학업적·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과 학교참여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Kim, H. J.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flo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국문: 김희정(2012). **교사-학생관계 및 학습동기와 학습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Kim, J. H. (2003). *A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nts' learning flow in adult learning progra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진호(2003). **성인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Kim, J. Y., Yang, H. A., Lee, M. Y., & Jang, W. S. (2017). The effec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rainees on educational achievement.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30(2), 23-42. ㉮ 국문: 김지영, 양현아, 이민영, 장원섭(2017). 중장년층 직업교육훈련 참여자의 교육 만족도가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래교육학연구*, 30(2), 23-42.
- Kim, K. Y., & Lee, H. S. (2021). Effects of lifelong learning center middle-aged adult learners' characteristics on learning flow.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989-1009.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4.989> ㉮ 국문: 김규영, 이희수(2021). 평생학습관 중장년 성인학습자 특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989-1009.
- Kim, M. S. (2010).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English learning motivation, goal orientation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2), 335-360. ㉮ 국문: 김명숙(2010). 초등학교 고학

- 년 학생의 영어학습동기 탐색: 목표지향성, 학업정서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2), 335-360.
- Kim, Y. S., & Cho, H. I.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hope, achievement emo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7(1), 157-179. <http://doi.org/10.18612/cnujes.2016.37.1.157> 국문: 김영숙, 조한익(2016). 대학생의 학업적 희망, 성취정서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논총**, 37(1), 157-179.
- Klem, A. M., & Connell, J. P. (2004). Relationships matter: Linking teacher support to student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262-273. <https://doi.org/10.1111/j.1746-1561.2004.tb08283>.
- Korea Labor and Employment Service. (2022). *New year hope statistics*. 국문: 노사발전재단 (2022). **신중년 희망통계**. <https://blog.naver.com/lifeplan4060/222864825787>
- Ku, J. Y., & Suh, E. K. M. (2007). Is happiness a zero-sum game? Belief in fixed amount of happiness(BIFAH)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4), 1-19. <http://doi.org/10.21193/kjspp.2007.21.4.001> 국문: 구자영, 서은국(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BIFAH)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9.
- Kwon, J. W. (2006). A study about influence of attributes of teachers on flow of adolescents in school cla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4), 173-195. 국문: 권재원(2006). 청소년의 학교수업 몰입에 영향을 주는 교사 특성의 연구. **청소년학연구**, 13(4), 173-195.
- Lee, H. S. (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new middle-aged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the will to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job-seeking skil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국문: 이한석(2019). **신중년의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이 은퇴 후 재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및 구직기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 Lee, I. K., & Kim, J. H. (2011). The effect of professor mentoring program for college freshmen's school adapt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2), 673-691. <http://doi.org/10.15703/kjc.12.2.201104.673> 국문: 이인경, 김장희(2011).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12(2), 673-691.
- Lee, J. R., Kang, S. H., & Yune, S. J.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 s learning flow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3), 479-503. <http://doi.org/10.22251/jlcci.2018.18.13.479> 국문: 이진

- 령, 강승희, 윤소정(2018).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관련변인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3), 479-503.
- Lee, K. T. (2001). *The Effects of peak learning program on increasing flow lev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국문: 이기택(2001). **정상 학습프로그램이 몰입 수준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Lee, S. J. (2010). The path analysi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lass climate, and learning flow on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4), 207-227. ☞ 국문: 이숙정(2010).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학생관계와 학급풍토 및 학습몰입의 경로분석. **초등교육연구**, 23(4), 207-227.
- Lee, S. K. (2009). Employment and decent jobs for the Korean mid-old age. *Korean Social Policy Review*, 15(2), 181-216. <http://doi.org/10.17000/kspr.15.2.200901.181> ☞ 국문: 이성균(2009). 중장년층의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 **한국사회정책**, 15(2), 181-216.
- Linger, W.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immediate communication, flow and motivation on continuous learning and to integrate techn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Francisco.
- Ma, J. H. (2010).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achievement goa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learning flow: Mediated by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국문: 마정희(2010). **고등학생의 성취 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Martin, A. J., & Jackson, S. A. (2008). Brief approaches to assessing task absorption and enhanced subjective experience: Examining 'short' and 'core' flow in diverse performance domains. *Motivation and Emotion*, 32(0), 141-157. <https://doi.org/10.1007/s11031-008-9094-0>
- Mega, C., Ronconi, L., & De Beni, R. (2014). What makes a good student? How emotions, self-regulated learning, and motivation contribute to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6(1), 121-131. <https://doi.org/10.1037/a0033546>
- Murdoch, T. B., & Miller, A. (2003) Teachers as sour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otivational Identity: variable-Centered and person-centered analytic approache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3(4), 383-399. <https://doi.org/10.1086/499732>
- Park, N. G., & Lee, E. J.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ask cost and their academic behavior for mathematics: Mediating effect of

- achievement emo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achievement leve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6(4), 577-598. <http://doi.org/10.17286/KJEP.2022.36.4.02> 국문: 박나경, 이은주(2022). 중학생의 수학에 대한 과제비용 인식과 학업행동의 관계: 성취정서의 매개효과와 성취수준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36(4), 577-598.
- Pekrun, R., & Linnenbrink-Garcia, L. (2014). *International handbook of emotions in education*. Routledge.
- Pekrun, R., & Perry, R. P. (2014). Control-value theory of achievement emotions. In R. Pekrun & L. Linnenbrink-Garcia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emotions in education* (pp. 120-141). Routledge.
- Pekrun, R., Elliot, A. J., & Maier, M. A. (2006). Achievement goals and discrete achievement emotions: A theoretical model and prospective tes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583-597. <https://doi.org/10.1037/0022-0663.98.3.583>
- Pekrun, R., Elliot, A. J., & Maier, M. A. (2009). Achievement goals and achievement emotions: Testing a model of their joint relations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1), 115-135. <https://doi.org/doi/10.1037/a0013383>
- Quadagno, J., Hardy, M., & Hazelrigg, L. (2003). Labour market transitions and the erosion of the Fordist lifecycle: Discarding older workers in the automobile manufacturing and banking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Issues and Practice*, 28(4), 640-651. <https://doi.org/10.1111/1468-0440.00251>
- Roth, G., & Assor, A. (2012). The costs of parental pressure to express emotions: Conditional regard and autonomy support as predictors of emotion regulation and intimacy. *Journal of Adolescence*, 35(4), 799-808.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1.11.005>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https://doi.org/doi/10.1037/0022-3514.57.6.1069>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https://doi.org/10.1037/0022-3514.69.4.719>
- Saam, R. H., Wodtke, K. H., & Hains, A. A. (1995). A cognitive stress reduction program for recently unemployed manager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1), 43-51.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5.tb00527.x>
- Skadberg, Y. X., & Kimmel, J. R. (2004). Visitors' flow experience while browsing a web site: Its measurement, contributing factors and consequen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0(3), 403-422. [https://doi.org/10.1016/S0747-5632\(03\)00050-5](https://doi.org/10.1016/S0747-5632(03)00050-5)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5).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elf-determination in 3 life domain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89-604. <https://doi.org/10.1007/s10964-005-8948-y>
- Son, S. K., & Do, S. L. (2012).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emotions i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s and teacher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2), 479-504.
☞ 국문: 손수경, 도승이(201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교사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과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26(2), 479-504.
- Statistics Korea. (2021). *Results of the may 202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older adults supplement*. ☞ 국문: 통계청(2021).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549>
- Statistics Korea. (2022). *Results of the may 2022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older adults supplement*. ☞ 국문: 통계청(2022).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19453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67-779.
- Wlodkowski, R. J., & Ginsberg, M. B. (2017).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A comprehensive guide for teaching all adults*. John Wiley & Sons.